

‘국가’ 없는 공동체의 상상력과 그 가능성* - 전후 오키나와 사상을 시야에 넣어 -

손지연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오키나와로 눈을 돌려 보면, 파농의 ‘폭력론’을 새로운 창조력 혹은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사유했던 이들이 있다. 오늘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평화의 연대가 창조된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인식,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는 지역의 사상적 독립을 주장하며 오키나와 사상을 모색해 간 아라카와 아키라를 비롯한 가와미쓰 신이치, 오키모토 게이토쿠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사유는 ‘국가’라는 중심에 저항하고 때로는 기꺼이 보듬어 안으며 자신들만의 사상을 만들어간 오키나와의 오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로부터 시선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메도루마 슌과 만나게 된다. 전쟁체험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탄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 그는 현 오키나와 상황을 전쟁과 점령의 폭력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한다. 무엇보다 그는 근대 국민국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폭력성’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非)국민, 반(反)국가 사상과 오키나와의 자립을 구상하고, 오키나와의 입장에서 국가와 천황제에 대해 논의하며, 오키나와 민중 시점에서 오키나와 내부비판에 나섰던 아라카와 등의 사유를 폭넓게 시야에 넣어 살펴보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작가가기 이전에 실천적 행동가이자 기록자이며, 발신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지건설 저지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메도루마 슌의 행보를 그의 작품과 함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사유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적 네트워크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유효한 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후 오키나와 사상, 공동체의 상상력, 아라카와 아키라, 가와미쓰 신이치, 오키모토 게이토쿠, 메도루마 슌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I. 들어가며

일찍이 프란츠 파농(2020:1-328)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폭력의 문제를 성찰한 바 있다. 그의 ‘폭력론’이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파농이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단단한 오늘’을 허물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창조로서의 폭력이다. 물리적 폭력의 행사가 불가능해진, 또 그러한 폭력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지금 우리는 파농의 폭력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에 각인된 냉전적 대결, 식민주의의 폭력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사유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오키나와로 눈을 돌려 보면, 이 폭력론을 새로운 창조력 혹은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사유했던 이들이 있다. 오늘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평화의 연대가 창조된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인식,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는 지역의 사상적 독립을 주장하며 오키나와 사상을 모색해 간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를 비롯한 가와미쓰 신이치(川満信一), 오카모토 게이토쿠(岡本恵徳)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사유는 ‘국가’라는 중심에 저항하고 때로는 기꺼이 보듬어 안으며 자신들만의 사상을 만들어간 오키나와의 오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¹⁾

1) 신조 이쿠오(新城郁夫 : 2007·2010)의 『도래하는 오키나와(到来する沖縄)』(インバクト出版社), 『오키나와를 듣다(沖縄を聞く)』(みすず書房),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 : 2008)의 『오키나와 교직원회사 재고를 위하여-60년대 전후의 오키나와 교원에게 목마름과 공포(沖縄教職員会史再考のために-60年代前半の沖縄教員における渇きと恐れ)』(近藤健一郎, 『方言札-ことばと身体』, 社會評論社) 등은 1960-70년 즈음해 ‘복귀’를 둘러싸고 제출된 다양한 논의들을 재고하고, 이후의 사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논점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라카와의 ‘반복귀론’을 거시적이면서 촘촘하게 살펴본 남궁철(2018)의 『전후 오키나와의 자기결정 모색과 ‘반복귀론’』(『일본역사연구』47집, 일본사학회), 오키나와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와 다니가와 겐이치(谷川健一)에 주목한 이수열(2014)의 『1960년대 일본의 국가 구상과 오키나와』(『일어일문학』64집, 일어일문학회), ‘반복귀’론을 중심으로 가와미쓰 신이치의 공동체 인식을 살펴본 오시로 기요히코(大城清彦 : 2015)의 『오키나와를 둘러싼 ‘공동체론’-요시모토 다카아키 『공동환상론』과 가와미쓰 신이치를 중심으로』

이로부터 시선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 오키나와 사회가 직면한 폭력적 상황을 미군의 점령시스템과 연결해 사유하거나, 식민주의적 폭력, 국가폭력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작가 메도루마 슌(目取真俊)과 만나게 된다. 그는 앞서 언급한 파농의 인식, 이른바 ‘대항폭력(Counter violence)’이라는 개념을 상기시키는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다. 메도루마는 1960년 오키나와 북부 나키진(今帰仁) 출생으로 아라카와 등과는 30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다. 메도루마(2013:18)는 스스로를 “‘전후 60년’의 원점인 오키나와 전투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세대”, “전쟁체험을 들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전후 세대”, “전쟁체험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와 같은 류큐(琉球)대학 출신으로²⁾, 그가 입학하던 1979년은 미군 연습장에서 날아온 1킬로그램이 넘는 금속덩어리의 포탄 파편이 고속도로 주차장에 떨어지는 등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혼란한 시기였다. 그의 생활 반경 또한 기노완시(宜野灣市) 후텐마(普天間) 기지 근처, 나고시(名護市)의 헤노코(辺野古)나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기지 게이트 근처 등 기지 주변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바람 소리(風音 The Crying Wind)』(1985), 『평화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길을 걸으며(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1986) 등의 80년대 소설에 녹아들어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 오키나와 전투(沖縄戦)와 미군기지 문제, 오키나와 공동체 문제가 삼위일체를 이루며 메도루마 작품세계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물방울(水滴)』(1995)을 비롯한 『무지개 새(虹の鳥)』(1998-2006), 『기억의 숲(眼の奥の森)』(2004-2009) 등을 연이어 내놓는다.³⁾

(沖縄をめぐる「共同体論」-吉本隆明「共同幻想論」と川満信一を中心に), 『일본학』 41호,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가와미쓰 신이치·나카자토 이사오(2014) 공편의 『류큐공화사회헌법의 잠재력(琉球共和社会憲法の潜勢力-群島・アジア・越境の思想)』, 未来社) 등이 있다.

2) 아라카와 등은 1950년대 초반에 입학해 동인지 『류대문학』을 간행하는 등 즐겁게 활동했고, 메도루마는 1979년에 입학했다. 아라카와는 졸업 전 오키나와타임스사 입사가 결정되어 중퇴했고, 오카모토는 1958년에 도쿄교육대학으로 편입했다.

3) 광형덕(2017·2019)의 『메도루마 슌 초기문학에 나타난 ‘타자’-타이완 관련 소설을

전쟁체험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탄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 메도루마는 현 오키나와 상황을 전쟁과 점령의 폭력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한다. 무엇보다 그는 근대 국민국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폭력성’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국가체제를 극복하든, 전복하든, 근본적인 폭력성과 식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를 창안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가 즐겨 그리는 오키나와 공동체 속 젊은 세대는 하나같이 문제아이고 체제의 반항아이다. 시대 혹은 기성세대와의 충돌이라거나 불협화음이라는 단선적인 독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가는 어두운 내면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내면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공동체 안으로 발을 깊숙이 들여놓아야 한다.

또한, 비(非)국민, 반(反)국가 사상과 오키나와의 자립을 구상하고, 오키나와의 입장에서 국가와 천황제에 대해 논의하며, 오키나와 민중의 시점에서 오키나와 내부비판에 나섰던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의 사유를 폭넓게 시야에 넣지 않고는 메도루마의 작품세계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메도루마의 소설을 통해 아라카와 등이 제출한 사유의 향방을 확인하는 일도 가능할 터다.

본 연구에서는 메도루마 문학에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양상이자 오키나와의 특수한 상황을 현현하는 ‘국가’ 없는 공동체의 상상력, 나아가 지배받지 않는,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1970년에 제기한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의 주요 사상에 덧대어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신생을 향해, ‘자기 부정’의 심연을 파헤치다」 『무지개 새』 윤킨이의 말, 아시아), 심정명(2016)의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메도루마 순 『무지개 새』와 「눈 깊숙한 곳의 숲」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2집,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소명선(2016)의 「『무지개 새』론-소설 속 폭력에 대한 재고찰」 『동북아문화연구』 4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등은 메도루마 문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폭력’ 양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II.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는 목소리들 - 아라카와 아키라 · 가와미쓰 신이치 · 오카모토 게이토쿠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무렵인 1930년대 초반에 태어나 전쟁과 함께 성장했고, 1950년대 류큐대학 재학시절 『류대문학(琉大文学)』이라는 동인지를 꾸려가며 전후 오키나와 사상을 만들어간 주역들이다. 대학 졸업 후에는 오키나와타임스사(沖縄タイムス社) 기자(아라카와, 가와미쓰), 류큐대학 교수(오카모토)를 역임하며 오키나와 사회를 에워싼 문제, 이를테면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 강제접수에 반대하는 이른바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을 비롯한 긴박한 정치 현안을 문학운동과 연계해 갔다. 특히 ‘복귀(復帰)’가 가시화되는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오키나와 상황을 위태롭게 감지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복귀’를 외치는 가운데 이들과 거리를 두며 ‘반(反)복귀’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신오키나와문학(新沖縄文学)』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반복귀론」(18호, 1970.12), 「속(続) 반복귀론」(19호, 1971.3)이라는 제하의 ‘반복귀론’ 특집호를 2회 연속 꾸렸다. 아라카와 아키라를 비롯해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오카모토 게이토쿠(이케자와 사토시[池沢聡]라는 필명으로 게재), 다니가와 겐이치(谷川健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훗날 아라카와는 동시대 ‘복귀’ 사상에 반기를 든 일련의 사상을 ‘반복귀’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 특집호 제목에서 비롯되었다고 회고했다.⁴⁾ 특집호 취지문에는 작금의 ‘복귀’ 움직임이 미일 양 정부의 권력자들에 의해 설계된 “부조리한 레일”, “환영과 가설로 가득한 가공의 레일”(沖縄タイムス社 1970.12:56)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아라카와는 미군정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린 오키나와 문

4) 특집호 제목을 붙인 이는 시인 마키미나토 도쿠조(牧港篤三)라고 한다. 마키미나토는 『신오키나와문학』 발행처인 오키나와타임스사 출판부에, 아라카와는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 2022년에는, ‘복귀’ 50년을 맞아 『신오키나와문학』 18호·19호 글들을 모아 「반복귀론」을 다시 읽는다(「反復帰論」を再び読む)』(오키나와타임스사 간행)라는 제목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城間有(2022), 「ウチナーンチュを解き放つ批判の矢- 「反復帰論」を再び読む」を編集して, 『越境広場』11号, 越境広場刊行委員会, 79.

제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며 전쟁과 전후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일본 정부를 ‘국가악(國家惡)’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의 자기결정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 순간 수많은 폭력이 당연시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반국가’라는 고통스러운 투쟁의 연속이 ‘지역의 자기결정권’의 근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반국가’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국가’, ‘비국민’이라는 용어에는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워 행해지는 술한 폭력을 거부하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강한 원망이 담겨있다.

그러한 자신의 ‘삶’과 그 ‘삶’을 매개해 주고 있는 오키나와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오키나와로 하여금 ‘국가로서의 일본’을 저격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독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상적 행위이며 우리가 짊어진 업고야 아닐 수 없다. [...] 말하자면 ‘국가로서의 일본’, 나아가 ‘국가’ 그 자체—그 어떤 정치권력이 이를 잡으려 한다 해도—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스스로를 반권력의 자리에 끌어앉혀 이와 대치하는 것을 견뎌낼 것인가. 그것을 사상의 모순과 강고함을 얼마만큼 자기 안에 확보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나 스스로를 심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반권력의 고독한 게릴라로 자리매김해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나는 오키나와인의 사상적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일본지향의 ‘복귀’사상을 절개하여 적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려 한다.

(新川明 1970:6-7)

1970년에 발표한 아라카와의 「‘비국민’의 사상과 논리-오키나와의 사상적 자립에 대해(『非國民』の思想と論理-沖縄における思想の自立について)」 모두(冒頭)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스스로를 ‘반권력의 고독한 게릴라’로 규정하고 오키나와에 있어 ‘일본복귀’란 무엇인지, 일본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하고자 하는지, 거꾸로 일본에 있어 오키나와는 무엇이며, 무엇이하고자 하는지 통렬하게 묻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결여된 채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조국복귀’(‘히노마루[日の丸]복귀’이자 ‘반미[反米]복귀’) 운동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엿보인다. ‘오키나와의 사상적 자립에 대해’라는 이 글의 부제에서 보듯, 아라카와는 그간 축적되어온 운동과 사상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오키나와 자립사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의 논점은 매우 명확하고 선명하다. 요컨대, 단순한 ‘어머니의 조국’이라는 발상, 196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오키나와 ‘복귀’운동이든, (헌법 제 9조와 제25조가 존재하는) ‘바람직한 일본’으로의 ‘반전복귀’든 그 어떤 말로 포장하든 ‘복귀’사상의 변종으로 ‘일본 내셔널리즘’의 사정권 안에 자리한다는 주장이다. 즉, 일본 중심의 내셔널리즘을 사상적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공허한 자전을 반복할 뿐이며, 일본 동화 지향에 촉발되어 일본과 오키나와를 ‘동질한 내이션’으로 용해해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대해 태생적으로 갖는, 아라카와가 ‘업고(業苦)’라고까지 표현한 ‘국가 부정(否認)의 가능성’이 ‘국가환상(환시)’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고도 말한다. ‘어머니의 조국’, ‘평화헌법’이라는 허망을 환상하는 데에서 출발한 ‘조국복귀’ 운동은, 아라 초묘(屋良朝苗)로 대표되는 오키나와 교직원회가 앞에서 끌고, ‘소박한 내셔널리스트’, ‘이기적 공리주의’로 무장한 오키나와 민중들의 환호 속에서 전개되었고, 지난 전쟁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과오까지 덮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또한, 반환합의와 그 땅고르기 작업인 국정참여 실현에만 몰두한 오키나와 기성 ‘혁신’ 정당 역시 복귀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오키나와 현민이 하나가 되어 복귀를 염원하며 앞날을 모색해 가는 가운데 아라카와가 ‘반권력의 고독한 게릴라’를 자처하며 ‘반복귀’를 주장하기 시작한 데에는 60년 안보투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라카와(1970:15)는 오키나와 문제를 완전히 누락시킨 형태로 전개된 본토의 60년 안보투쟁을 목도하며, “유토피아로서의 일본”이 “소멸”해 가고, “‘어머니의 조국’이라는 심정주의”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가졌던 ‘어머니의 조국’(실제로 아라카와의 어머니는 본토 출신이기도 하다)이라는 ‘환상’을 깨고 오키나와, 오키나와인의 포지션에서 성찰적 목소리를 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아라카와(1970:23)가 제시하는 오키나와 투쟁의 방향성은 “‘국가로서의 일본’을 공격하게 하”고, “국가해체라는 폭약으로 일본의 목을 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비국민’, ‘반국가’, ‘반국민’으로 요약된다.

이듬해에 ‘비국민’ 논의를 보완하고 ‘반국가’의 논점을 보다 명확히 밝힌 『반국가』라는 낙인과 차별의 땅 오키나와-오키나와 자립의 시점

(反国家の兇区-沖繩・自立への視点)』(現代評論社, 1971)을 간행한다. 연이어 유사한 글을 발표하게 된 경우는 ‘비국민’, ‘반국가’의 사유가 ‘류큐독립론’을 내세운 정치운동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선 반공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자신이 ‘독립’론자가 아니라 ‘반복귀’주의자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위해 썼던 이 글도 ‘독립’론자가 아니라는 명쾌한 해명은 되지 못한 듯하다. 이후, 아라카와(2000:60-149)는 「자기사(自己史) 안의 ‘반복귀’론」이라는 글에서 ‘반복귀론’을 주장한 지 30여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어떤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는지 자기 안의 사상적 변화와 함께 이전의 과격한 논조를 조금 가라앉히고 차분히 좇는다. ‘반복귀’론은 단순한 ‘독립’론적 정치운동론이 아니라는 것, ‘독립’론이라는 정치운동론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고, 국민국가 환상을 깨뜨리는 역할, 학술적 영역으로 끌어올려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자립 사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천황제 사상에 대응하는 오키나와 사상(아이덴티티)이 ‘반복귀’론 사상의 연장선에 자리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오키나와학’의 창시자로 칭송받아온 이하 후유(伊波普猷)를 비롯한 근대 오키나와 지식인의 한계—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일본에 대한 ‘이질감’을 천황제 국가의 절대성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사상의 다양성을 내세워 합일화를 도모하는 데 동원했다고 말한다—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던 듯하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러 ‘복귀’ 40년을 맞이한 2010년대에 아라카와는 ‘조국’ 의식과 ‘복귀’ 사상을 재심(再審)하는 글을 발표한다. 그 안에서 “모든 오키나와인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복귀’와 함께 잊었고, ‘조국’ 의식이 쇠퇴했다”는 도베 히데아키(戸邊秀明)의 주장에 이의를 표하며 오늘날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조국’ 의식을 동시대 아베 정권의 행보 속에서 포착해 낸다. (新川明 2013:54) 예컨대, 2013년 4월, 일본의 독립과 맞바꾸 오키나와, 아마미(奄美), 오가사하라(小笠原)를 잘라내 버린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일(1952.4.28.)을 ‘굴욕의 날’이 아닌 ‘주권회복의 날’로 삼아 맹렬히 반발하는 오키나와를 외면하고 천황, 황후를 배석시켜 축하 식전을 거행한 것은 당시 아베 수상 측과 오키나와현 측이 모종의 담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노예 사상”에 다름 아니라

고 강하게 비판한다. 또한, 일본이 오키나와를 잘라 내버린 날을 “굴욕” 즉 “수치를 당하여 면목을 잃” (新川明 2013:64)었다고 한탄하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비굴한 정신의 발로라며 ‘굴욕의 날’이라고 호명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언급한 『반복귀론』을 다시 읽는다. 『간행에 부쳐 아라카와의 ‘반복귀’ 주장이 복귀가 목표로 한 ‘운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치난추 스스로가 앞장서서 국가에 기대는 정신”, 즉 “‘복귀사상’을 부정” (城間有 2022:79)하는 데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오키나와의 사상적 자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50년 전 논조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라카와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며 활발한 논의를 전개한 가와미쓰 신이치는 오키나와의 사상적 자립을 오키나와와 천황제의 관계성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방식으로 질문한다. 아라카와의 「비국민의 사상과 논리」와 같은 해인 1970년에 발표한 「오키나와의 천황제 사상(沖繩における天皇制思想)」에서 가와미쓰(1970:121)는 국가와 일체화되어 전쟁을 수행했던 오키나와에서 천황(제) 문제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화하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황민화 교육은 잘못됐다”, “천황(제) 사상은 실수였다”라는 반성으로 전후 사회에 무임승차한 탓이라고 말한다. 가와미쓰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오키나와 민중 내부에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져 정착하게 되었는지 추궁해 간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메이지로 편입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역사를 가졌던 ‘류큐’, 그리고 전후 일본으로부터 배제되어 미군통치하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던 오키나와가 국가와 관계를 맺는 방법 혹은 천황(제)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추궁이기도 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가와미쓰는 ‘천황’과 ‘류큐왕’의 역사의 차이와 이질성에 주목한다. 요컨대, 류큐의 ‘왕’은 일본의 ‘천황’과 달리 신적이기도 영적이기도 절대적 대상도 아니며, 오키나와 민중에게 뿌리내린 ‘종교적 감수성’—혈연으로 이어지는 조령이나 마을 공동체의 조령인 ‘근신(根神)’ 신앙—을 ‘천황’이라는 ‘현인신’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오키나와의 경우, 민중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왕이야말로 ‘덕 있는 군주’라는 선양(禪讓)사상이 자리하고 있어 천황(제) 자체가 갖는 종교성보다 ‘야마토’의 ‘풍요’라는 이미지에 끌렸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민중 내셔널리즘을 지탱하는 근간에 있는 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와 ‘정치’의 용화라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야마토 친국’의 발상과 결합하여 일본 국체로 수렴해 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야마토 친국’이라는 발상 속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기대감이 엮여있다. 천황 자체가 가진 종교성보다 ‘야마토’라는 공간이 가진 흡인력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川滿信一 1970:110-112)

가와미쓰의 문제의식은 ‘복귀운동’ 비판으로도 향했다. ‘복귀협(沖繩県祖国復歸協議會)’ 운동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본토’라는 용어가 ‘국가’나 과거 천황(제) 절대주의에 기초한 ‘국체’라는 개념과 분명 다를 텐데 이를 혼동해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본토=국가=동일민족=문화와 경제의 중앙=막연한 풍요로운 지리적 공간’이라는 도식을 도출한 것에서 보듯, 오키나와 민중의 ‘본토’ 인식은 국가가 만들어 낸 환상, 그리고 국가를 성립시키는 공동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가번영’과 ‘국가를 지키는 기개’라는 문구가 부르주아들의 대의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역(逆)화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르주아 국가의 배후를 지탱하는 것이 과거 천황제와 같은 형태의, 일본 토착의 정념의 사각지대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사념(思念)의 탄환을 겨누지 않으면 안 될 것” (川滿信一 1970:129)이라고 경고하며,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본토’를 향한 불명확하고 추상화된 환상에 더하여 자본의 유기적 관계가 만들어 내는 환상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한다.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본토’를 향해 ‘사념의 탄환’을 겨누는 가와미쓰와 ‘독화살’을 겨누는 아라카와의 논조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듯 보인다. 이들의 논조가 이토록 래디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란 무엇인가’, ‘오키나와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 뜨겁게 불붙었던 시대 분위기를 공유하며, ‘반복귀’, ‘반국가’, ‘비국민’ 사상을 통해 국가로서의 일본을 상대화하고, 오키나와의 사상적 자립을 염원했던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가와미쓰(2014:60)는 미일 양 정부의 주도하에 기지를 떠안은 ‘72년 오키

나와 반환’ 결정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복귀운동’의 역사적 역할이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복귀협, 교직원회, 오키나와 학생투쟁 등 오키나와 내부에 파리 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와미쓰의 성찰이 자리한다. 1969년 행정주석통상선거에서 혁신 진영의 야라 주석이 탄생한 기세를 몰아 ‘복귀’를 실현시키겠다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동일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복귀’를 외치는 것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아울러 ‘복귀’라는 환상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는 사상적, 정신적으로 자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오키나와 자립론’을 전개했다. 국정참가 거부 집회 등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다.

참고로 ‘복귀’가 임박한 70년에 오키나와의 혁신정당과 단체가 오에 겐자부로를 초청해 유세 지원을 부탁하려던 것을 아라카와가 만류한 일도 있었던 것에서 당시 국정참가 거부가 갖는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⁵⁾ 오에가 잡지 『세카이(世界)』 지상에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1969.1-1970.4)를 연재한 것도 이 무렵이다. 본토 출신인 오에는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일본인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던지고 그 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간다. 이 명제로부터 오에는 일본국 헌법은 오키나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오키나와에 속한다는 것, 일본의 ‘자립’은 오키나와가 지탱하는 구조 속에서 성립된 것임을 도출해 낸다. 일본, 일본인을 상대화하는 시선을 오키나와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중(2023:31)은 이 같은 오에의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 “일본에서 오키나와로, 나아가 ‘동양’에서 일본, 일본인을 묻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오키나와 및 아시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전후’를 다시 파악하고, 넓은 시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오에의 전후 민주주의가 향하려던 길”이자, “오에가 구상한 ‘복귀’의 방향성”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을 상대화하며 오키나와의 ‘자립’을 화두로 꺼낸 오에의 사유는 당시 아라카와를 비롯한 오키나와의 실천적 지식인

5) 아라카와는 오에가 당리당략에 이용될 것을 우려했고, 그 바람대로 오에의 유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세중(2023), 「오키나와로, 아시아로 향한 ‘전후 민주주의’-오에 겐자부로의 『오키나와 노트』에 부쳐, 『문학인』 여름호(통권 10호), 소명출판, 26.

들과 공명하는 지점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사진1〉 오에 겐자부로와 아라카와 아키라(오른쪽)
2000년 6월 나하의 한 호텔에서



〈사진2〉 『류대문학』 초창기 멤버. 1954년 류큐대학 도서관 앞.
뒷줄 왼쪽부터 오키모토 게이토쿠, 한 사람 건너 가와미쓰 신이치
(사진1, 2 아라카와 제공)

잘 알려진 것처럼 가와미쓰는 오키나와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헌법초안 「류큐공화사회헌법(琉球共和社会憲法)」을 구상한 바 있다.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이 반환되고 80년대 무렵부터 복귀운동이 과연 율았나 하는 반성이 일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귀운동은 잘 된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뒤섞여 혼란했던 1981년의 일이다. 가와미쓰는 ‘기본 이념」을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류큐공화사회의 인민은 역사적 반성과 비원을 딛고서, 인류 발생의 역사 이래 권력집중기능에 의한 일

체의 억압의 근거를 지양하고, 이에 국가를 폐절할 것을 소리 높여 선언한 다”, “이 헌법은 법률을 모두 폐기하기 위한 유일한 법이다”(가와미쓰 신이치 지음, 이지원 옮김 2014:140)라고. 이른바 「류큐공화사회헌법C사(시)안(琉球共和国憲法C私(試)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헌법안은 잡지 『신오키나와문학』48호(1981.6) 지상에 게재되었고, 가와미쓰 이외에도 나카소네 이사무(中宗根勇)의 「류큐공화사회헌법F사(시)안」이 실렸다.⁶⁾ 이 헌법안 밑바탕에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둘러싼 가와미쓰의 깊은 문제의식이 자리하는데, 이를테면 국민국가의 국경이라는 영토의 울타리를 사회적 교류를 통해 허물고 국경을 넘는 ‘사회적 영토’의 구상이 그것이다.⁷⁾

평론가 히야네 가오루(比屋根薫)는,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 공히 ‘국가=폭력장치’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반국가적 심정과 반근대의 뉘앙스를 공유하며, 오카모토의 「수평축의 발상(水平軸の発想)」의 경우, 반국가에 기반한 ‘공동체’론의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한다. (가와미쓰 신이치 지음, 이지원 옮김 2014:211) 그의 지적대로 오카모토 사상의 핵심은 ‘공동체’의 논리다.

1958년 본토로 유학을 감행한 오카모토는 아라카와, 가와미쓰가 그랬듯 오카모토 또한 ‘류큐호(琉球弧)’라든가 ‘야포네시아(ヤポネシア)’라는 시마오 도시오(島尾敏夫)의 발상에 적지 않은 자극을 받는다. 이를테면, ‘부드러움’, ‘상냥함’, ‘천진난만한 생명력’ 등 근대문명에 증독되지 않은 것을 오키나와 문화의 특성으로 들고, 이것을 ‘과도하게 긴장’하고 ‘경직’된 일본 근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시마오의 논리는, 오키나와와 본토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그것도 오키나와 자신의 언어로 그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숨 막히는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곳, 정체되어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없는 낙후된 곳, 모든 가능성을

6) 여기서 C, F 등의 영문알파벳 표기는 “일본 국가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저항으로서 발언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자유롭게 발언하기 위해 익명성을 갖게 했고, 또 각자의 헌법 시안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가와미쓰 신이치 지음, 이지원 옮김(2014),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담북스, 139.

7) 농작물이나 생선 등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하며, 예전에 그랬듯이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등의 교역을 자유자재로 열어두어 사회와 세계를 넓혀가자고 제안한다. 위의 책, 209.

가두고 있는 곳, 그래서 ‘탈출’해야 하는 ‘불모지’로 느꼈던 자신의 고향 오키나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태이자, 오래되어 케케묵고 정체된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지역을 도망쳐 나올 만큼 부정해 왔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사태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마오의 발상에 동의하면서도 그것과 궤를 달리하는 ‘오키나와 사상’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요컨대, ‘오키나와 사상’을 상대화하는 시야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과거 천황제 국가로서의 ‘본토’를 지향하고, ‘본토’와 동질화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는 ‘오키나와 전투’(전쟁 중의 애국심과 전후의 국가의 공백 포함)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인의 잠재된 의식 밑바닥에까지 오키나와 전투 체험이 각인되어 있으며, 그 한가운데 자리한 ‘집단지결(集團自決)’이라는 사태를 지탱하는 것은 오키나와만의 ‘공동체’ 의식이었다고 말한다. ‘공동체’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물론 군의 명령 없었다는 전제 포함) 도카시킴(渡嘉敷島)처럼 집단으로 ‘자결’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때 집단자결로 내몰린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하나로 뭉뚱그려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공동체의 생리’와 ‘공동체 의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조국복귀운동’ 또한 단순한 ‘본토지향’만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국가’(조국)라든가 ‘이민족’이라는 관념 또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보다, 그 일상생활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현실적으로 소외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드러나며, ‘복귀운동’이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목표로 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감각(미국에 대한 이질감과 위기감)이 ‘공동체적 생리’로 증폭된 결과이자 이질감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집단지결’과 전후의 ‘복귀운동’ 열기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지’가 작동해 “하나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의 오키나와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존재’로 여겼던 ‘일본인’을 ‘공동체적 존재’인 ‘일본국민’으로 변경하려 한 시도가 그것이

다. 아울러 이 ‘공동체적 의지’를 현실화하여 오키나와인으로 하여금 ‘천황’을 정점으로 한 ‘공동체’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 바로 황민화 교육이다. [...]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민중들의 내면에 자리잡지 않았음에도-인용자) 그것이 ‘애국심’으로 오인받게 된 데에는 천황이 민중들의 행위 규범인 ‘질서감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의지’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화가 삶의 터전을 직접 강타했기 때문에 더 강렬했을 뿐이고, 상황이 바뀌면, 예컨대 ‘복귀운동’과 같은 민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면 ‘도카시키섬의 집단자결 사건’이나 ‘복귀운동’은 하나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다.

(岡本惠徳 1970:188-191)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인간관계가 결정되고, 나아가 같은 마을, 같은 섬에 속해 있는지 등 주변과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관계가 보다 세분화된다는 오카모토의 ‘수평축의 발상’은 오키나와 공동체의 생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본 제국주의 논리가 오키나와에 침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또 거기에 지배당한 오키나와 민중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한 논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오랜 본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오키나와를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로 바라보고 자립 사상을 묻기 시작한 것은 아라카와, 가와미쓰의 논의와 함께 ‘복귀’ 이후의 오키나와를 사유하는 사상적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서 다룰 메도루마 슌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그와 동시에 실천적 행동가이자 기록자이며 발신자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작가이기도 하다. 미군기지 저지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행보 속에서 아라카와 등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변별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사상을 확장해 간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Ⅲ. 지배받지 않는, 지배하지 않는 (탈)공동체의 가능성-메도루마 슌

‘복귀’가 일종의 환상이며, ‘복귀’해야 할 ‘일본’이라는 국가 또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1995년 오키나와 북부 지역에서 주일 미군 세 명이 12세 오키나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오키나와 사회의 충격은 상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도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당시 도쿄에 체류 중이었다는 문학 평론가 신조 이쿠오(2007:179-180)는 도쿄에서는 안보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묘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그렇다면 ‘복귀’라는 정치적 타협이 소녀에게 가해진 폭력을 은폐한 셈이다. 신조는 거기에서 일본과 미국이 진흥책과 군용지료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뒤로는 군사기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작금의 오키나와 상황을 떠올리며, 그 강력한 힘이 머지않아 자신과 같이 미약한 개개인의 신체에도 덮쳐 오리라는 것을 감지한다.

메도루마 역시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그는 오키나와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미군 병사에게 강간당해 임신하거나, 길거리를 걷다 차로 납치당할 뻔하거나, 디스코장에 드나들며 미군 병사와 사귀는 여학생들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더구나 사건이 발생한 북부가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라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광형덕(2019:232-233)은 이에 더해 미군기지 반대 운동의 결과로 ‘후텐마 기지’의 현외이설이 자취를 감추고 남부의 기지를 북부로 옮기는 미봉책인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 강행된 것을 들며, 이러한 움직임이 북부에서 태어난 메도루마로 하여금 이중삼중의 북부 차별을 느끼게 했으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0년대 중반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소녀 성폭행에 분노한 목소리 ‘기지반대’라는 거대한 합성을 만들었고,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당시 지사의 대리서명 거부와 8만 5천 명이 운집한 현민대회 등이 이어지자 미일안보체제에 위기를 느낀 일본 정부가 북부 진흥책 등 ‘독이 든 사탕’을 내놓으며 ‘기지문제’를 ‘경제문제’로 바꿔치기해 간다. (메도루마 순 지음, 안행순 옮김 2013:90)

얼마 전 2020년, 메도루마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이나 잡지 지상에 발표해 왔던 글을 모아 『안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에서(ヤンバルの深い森と海より)』(影書房)라는 제목의 평론집을 간행했다. 책 말미에 이 글들은 다카에(高江)의 헬리패드 건설과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행동을 하던 와중

에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 실제로 그는 오랜 기간 소설을 집필할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오로지 기지건설 저지 운동에 매달려 왔다. 오키나와의 숲과 바다가 군사기지 건설로 파괴되어 가는 현장은 그의 블로그⁸⁾에 빠짐 없이 기록되고 있다. 문학 평론가 나카자토 이사오(目取真俊·仲里効 2017:7)는 그가 찍은 사진 속에서 “다카에의 숲 소리, 숲의 눈, 그리고 숲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예민한 감수력”, “가해지는 국가폭력의 질이 에코사이드이자 바이오사이드인 동시에 숲과 연결된 문화의 파괴”라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해 낸다.

메도루마는 ‘행동하는 것’과 ‘쓰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 미군 지배가 야기하는 폭력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그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이다. 1997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으로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물방울』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전쟁의 기억을 담았다. 소설의 배경은 1995년, 전후 50년으로 오키나와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군에 의한 소녀성폭행사건이 일어난 해이자, 10대에 전쟁을 겪고 하루하루의 생활에 쫓겨 묻어 두었던 전쟁의 기억이 일선에서 은퇴할 무렵 트라우마로 되살아나는 시기와 맞물린다. 그보다 앞서 발표한 『평화거리』는 이름이 붙은 길을 걸으며(1986) 역시 지난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이 소설은 ‘평화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우타와, 이웃에서 장사를 하며 우타와 나이 차이는 많지만 친인니처럼 따르는 후미를 주요 등장인물로 그린다. 메도루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우타를 대신해 후미로 하여금 전쟁의 기억, 트라우마를 언어로 표출하게 한다. 말하자면 후미는 메도루마가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억의 계승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우타의 손자로 등장하는 가쓰야라는 인물 또한 전후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숨을 거둔 메도루마의 실제 숙부가 모델인데, 어린 숙부의 죽음은 할머니와 가족들만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불러온 오키나와 전체의 비극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보인다.

8) 메도루마가 운영하는 블로그 「해명의 섬에서(海鳴りの島から)」(<https://blog.goo.ne.jp/awamori777/arcv>)에는 지금도 꾸준히 기지건설 현장을 감시하는 사진, 영상 및 관련 글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외에도 『바람 소리』, 『혼 불어넣기(魂込み)』, 『기억의 숲』 등의 작품을 통해 전쟁 속에서 오키나와 민중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또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는다. 이들 소설에서 민중의 체험과 기억을 담은 글쓰기, 미군의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메도루마의 시선을 감지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라카와 등이 일찍이 확보한 오키나와 공동체와 민중을 중심에 둔 시야를 소설 속 등장인물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방울』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을 때, “전쟁의 비극, 그 잔혹함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 명확해 졌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억이 존재하고,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삶을 심부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다. [...] 그러한 부분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침내 『물방울』에 의해 그러한 침묵하는 인간이 안고 있는 상처의 깊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문학 특히 소설이 갖는 힘을 이렇게까지 발휘한 작품은 드물 것이다” (岡本惠徳 2007:206)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 계승 문제와 함께 메도루마 작품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신식민지적 상황, 국가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오키나와의 현 상황을 이른바 ‘대항폭력’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억의 숲』, 『무지개 새』는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전자는 오키나와 전투, 미점령, 9·11테러까지 시야에 넣어 국가폭력, 식민주의 폭력, 가부장제 폭력이 뒤엉킨 전후 오키나와 사회를, 후자는 소녀성폭행사건이 발생한 1995년 당시의 오키나와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기억의 숲』의 주인공 세이지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미군 병사 세 명에게 강간당한 사요코를 대신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작살로 그들의 신체를 공격해 복수한다. 세 명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한 덕에 전장에서의 죽음을 면한다. 나머지 두 명은 전사했다. 하지만 그 업보는 손자대로 이어져 2001년 9·11테러에 손자가 희생되는 것으로 그려진다(아들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으나 운 좋게 살아 돌아왔다). 아울러 오키나와 공동체 내부의 폭력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세이지가 작살 공격 후 숨어든 은신처를 미군에게 알려준 것은 다른 아닌 마을 사람이

라는 것(세이지는 미군이 쏜 최루가스에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된다), 사요코의 신체는 미군만이 아니라 마을 남성들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근엄한 가부장의 얼굴을 한 사요코의 아버지가 성폭행으로 불행한 임신을 하게 된 자신의 딸을 더럽혀진 신체로 낙인찍어 이중삼중의 고통 속으로 몰아간 것 등이 그러하다.

『무지개 새』의 폭력 양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학교 시절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하고,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피폐해진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도 불법 성매매 조직에 휩쓸리게 된 마유와 그 조직의 우두머리인 히가, 그리고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히가의 행동대원 역할에 충실한 가쓰야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마유는 성(性)을 사기 위해 찾아든 남성들에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가쓰야는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협박하거나 돈을 뜯어낸다. 마유와 가쓰야는 히가의 폭력을 또 다른 방식의 폭력으로 전유해 가는 존재이면서 히가의 폭력에 굴복한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소설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아 가면서 소녀성폭행사건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점점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수만 명이 운집한 항의집회 장면을 비추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면서 히가와 마쓰다가 주고받는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 선명하다.

“저렇게 사람이 모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더니 오키나와 사람들도 한심해. 저만큼 모였으면 기지 철조망을 찢고 안으로 쳐들어가서 미군 병사를 두들겨 패 죽여 버리면 될 텐데. 아무리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봤자 미군은 끄덕도 하지 않잖아.” [...] “매달아 놓으면 되잖아. 미군 병사의 아이를 잡아다가 발가벗겨서 58호선 야자나무 아래에 철사로 매달아 놓으면 되지.” [...] “진짜로 미군을 쫓아버릴 생각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메도루마 슌 지음, 광형덕 옮김 2019:200-201)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서 둘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가쓰야는 문득 단정한 교복 차림의 앳된 소녀의 모습에서 낮에 방에서 봤던 마유의 얼굴을 겹쳐보며 “간발의 차이로 어디선가 무언가가 변했다면” (메도루마 슌 지음, 광형

덕 옮김 2019:201) 텔레비전 속 소녀와 마유의 운명이 뒤바뀌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가쓰야의 인식은 “무구한 희생이나 비폭력과 같은 규범적 인식에 대한 비판” (심정명 2016:16)이기도 하며, 오키나와에 군사기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자신들의 터전에서는 미일 안보체제의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일본 본토인을 향한 뼈 있는 일침이기도 하다. 마유로 하여금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미군의 어린아이까지 목 졸라 살해하게 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오키나와 땅에서 더 이상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배받지 않는, 지배하지 않는 (탈)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아라카와, 가와미쓰, 오카모토는 1950년대 초반에 입학해 동인지 『류대문학』을 간행하는 등 줄곧 함께 활동하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는 지역의 사상적 독립을 주장했다. 류큐대학 문리학부 교수를 지내며 오키나와 문학 연구자로 많은 성과를 낸 오카모토를 제외하고, 아라카와와 가와미쓰는 대학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과도 멀어졌다. 두 사람은 류큐대학 시절부터 「일본이 보인다(日本が見える)」, 「‘유색인종’ 초(‘有色人種抄」(아라카와), 「통곡의 바다(哭く海)」, 「증인대(証人台)」(가와미쓰) 등 인상 깊은 시를 다수 남겼지만, 그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 비평, 평론 활동에 주력했다.⁹⁾

이들의 사상은 이후 세대인 메도루마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9) 이 글에서 다룬 저술 이외에도, 『이족과 천황의 국가-오키나와 민중사의 시도(異族と天皇の国家-沖縄民衆史への試み)』(1973), 『신남도 풍토기(新南島風土記)』(1978), 『일본이 보인다 시화집(日本が見える 詩画集)』(1983)(이상, 아라카와), 『오키나와 뿌리로부터의 물음-공생에 대한 갈망(沖縄-根からの問い-共生への渴望)』(1978), 『오키나와 천황제의 역광(沖縄-天皇制への逆光)』(1988, 공편), 『오키나와 자립과 공생의 사상-‘미래의 조몬’으로의 가교(沖縄-自立と共生の思想-「未来の縄文」へ架ける橋)』(2020), 『복귀 50년의 기억(復帰五〇年の記憶)』(2022)(이상, 가와미쓰) 등 최근까지도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는데, 다르다고 한다면 메도루마의 경우 그것을 문학이라는 장르에 녹여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서 간 데에 있을 것이다. 메도루마가 소설가라는 본업도 미뤄두고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만큼 강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키나와의 상황이 그만큼 더 긴박해지고 있다는 예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라카와 등이 행동하지 않는 인텔리겐치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라카와는 2013년에 “류큐사상 처음으로 창설된 류큐독립 관련 학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류큐민족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琉球民族獨立総合研究学会)’¹⁰⁾를 앞장서서 발족시켰고, 최근 2022년에는 “오키나와 전투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무력에 의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운동 ‘노모어 오키나와센 이누치두 다카라노카이(ノモア沖縄戦 命どう宝の会)’에 이름을 올리며 실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¹¹⁾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오카모토는 ‘류큐호 주민운동(琉球島の住民運動)’, ‘게시카지(けし風)’ 등 풀뿌리 운동(草の根運動)에 참여하며 오키나와 자립사상을 사회운동 레벨로 연계 시켜간 바 있다. 가와미쓰의 경우도,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만들어 낸 ‘국가’라는 환상과 그것이 빚어내는 폭력과 지배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류큐공화사회헌법’을 구상하고, 일체의 무력 행위를 거부하며 ‘국가의 폐기’를 주장했다. 가와미쓰(2018:289-342)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자신의 헌법안을 “일본 국가에 저항하면서 비슷한 국민국가를 류큐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대 국가라는 시스템을 전부 해체하여 국가 없는 사회를 구상하자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은 제주도를, 일본은 류큐·오키나와를, 중국은 대만, 해남도를 잠재 주권의 경

10) ‘류큐민족독립종합연구회 설립 취지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theintellectual.net/images/articles/Okinawa/%E2%91%A0%E7%90%89%E7%90%83%E6%B0%91%E6%97%8F%E7%8B%AC%E7%AB%8B%E7%B7%8F%E5%90%88%E7%A0%94%E7%A9%B6%E5%AD%A6%E4%BC%9A%E3%83%BB%E8%A8%AD%E7%AB%8B%E8%B6%A3%E6%84%8F%E6%9B%B8%E3%83%BBfinal%20version%20-%202013.05.23.pdf>(검색일 : 2023.5.8.)

11) ‘노모어 오키나와센 이누치두 다카라노카이’ 홈페이지 참조.
<http://nomore-okinawasen.org/list/>(검색일 : 2023.5.8.)

계로 양도”하고, “이어져 있는 이들 섬은 월경 헌법을 제정하고 영세중립의 비무장 체제를 취해 아시아 각국의 외교 테이블”로 삼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도 했다.

『기억의 숲』과 『무지개 새』를 한창 연재할 무렵 메도루마(2013:94)는 오키나와의 전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금까지는 아마토의 형편에 맞춰 농락당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조용하게 순종할 리가 없다. 자신을 짓밟는 발을 ‘치우라’고 애원해도 치우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똑같이 공격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식의 절박한 물음들을 던진다. 이 절박한 물음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거부하며 오키나와의 사상적 독립을 모색해 간 1970년의 아라카와 등의 사유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단일한 공동체로 상상되기 쉬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남한 사회에서 ‘반국가’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순한 사상쯤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아라카와 등이 말하는 ‘반국가’는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워 행해지는 술한 폭력을 거부하는 적극적 평화이다. 오키나와 사상을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오늘의 자리에서 동아시아 평화연대라는 새로운 창조를 상상하기 위함인지 모른다. 그리고 어찌면 ‘한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만들어 낸 오늘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 행보인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가와미쓰 신이치 지음, 이지원 옮김(2014),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담북스, 60·139·140·209·211.
- 곽형덕(2019), 「신생을 향해, ‘자기 부정’의 심연을 파헤치다」, 『무지개 새』 옮긴이 말, 아시아, 232-233.
- 메도루마 슌 지음, 곽형덕 옮김(2019), 『무지개 새』, 아시아, 200-201.
- 메도루마 슌 지음, 안행순 옮김(2013),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18·90·94.
- 프란츠 파농 지음, 남경태 옮김(2020),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1-328.
- 新川明(1970), 「非国民」의思想と論理」,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叢書わが沖繩 第6巻), 木耳社, 6-7·15·109·147.
- _____ (2000), 「自分史のなかの「復帰」論」, 『沖繩・統合と反逆』, 筑摩書房, 60-149.
- _____ (2013), 「「祖国」意識と「復帰」思想を再審する」, 大田昌秀·新川明·稲嶺惠一·新崎盛暉, 『沖繩の自立と日本-「復帰」40年の間いかけ』, 岩波書店, 54·64.
- 岡本恵徳(1970), 「水平軸の発想」, 谷川健一 編, 앞의 책, 188-191.
- _____ (2007), 「『沖繩』に生きる思想」, 未来社, 206.
- 川満信一(1970), 「沖繩における天皇制思想」,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叢書わが沖繩 第6巻), 木耳社, 110-112·121·129.
- 新城郁夫(2007), 『到来する沖繩』, インパクト出版会, 179-180.

[학술지논문]

- 가와미쓰 신이치·이지원·정영신·이시하라 슌(2018), [좌담Ⅱ] 「냉전의 갈라파고스에서 평화의 오아시스로」, 『황해문화』 가을호(통권 100호), 새얼문화재단, 289-342.
- 심정명(2016),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메도루마 슌 『무지개 새』와 『눈 깊숙한 곳의 숲』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2집,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16.

오세중(2023), 「오кина와로, 아시아로 향한 ‘전후 민주주의’-오에 겐자부로
의 『오кина와 노트』에 부쳐, 『문학인』여름호(통권 10호), 소명출판,
26-31.

沖繩タイムス社(1970.12), [特集] 「反復帰論, 『新沖繩文学』18号, 56.

_____ (1981.4), [特集] 「琉球共和国へのかけ橋, 『新沖繩文学』48
号, 164-172.

目取真俊·仲里効(2017), [特集] 「目取真俊 野生の文学, <否>の風水, 『越境
広場』4号, 越境広場刊行委員会, 7.

城間有(2022), 「ウチナーンチュを解き放つ批判の矢- 『反復帰論』を再び読
む』を編集して, 『越境広場』11号, 越境広場刊行委員会, 79.

[웹사이트]

‘류큐민족독립종합연구회 설립 취지서’ 홈페이지(<http://theintellectual.net/images/articles/Okinawa/%E2%91%A0%E7%90%89%E7%90%83%E6%B0%91%E6%97%8F%E7%8B%AC%E7%AB%8B%E7%B7%8F%E5%90%88%E7%A0%94%E7%A9%B6%E5%AD%A6%E4%BC%9A%E3%83%BB%E8%A8%AD%E7%AB%8B%E8%B6%A3%E6%84%8F%E6%9B%B8%E3%83%BBfinal%20version%20-%202013.05.23.pdf>[검색일 : 2023.5.8.]

‘노모어 오кина와센 이누치두 다카라노카이’ 홈페이지(<http://nomore-okinawasen.org/list/>[검색일 : 2023.5.8.]

❖ ABSTRACT

The Imagination and Possibility of a Community
without a ‘State’
– With a View of the Postwar Okinawan Idea –

Son, Jiyoun
Kyung Hee University

Looking back at Okinawa around 1970, there were people who actively considered Fanon's ‘Theory of Violence’ as a new creativity or possibility. Arakawa Akira along with Kawamitsu Shunichi, Okamoto Keitoku, and others were the ones who pursued the Okinawan idea by insisting on the ideological independence of the region rejecting violence in the name of ‘state’; recognition of the obvious fact that a new solidarity of peace can be created only when the present is destroyed. Their reasoning shows the present state of Okinawa well as they resisted the center called ‘nation’ and sometimes willingly embraced it and created their own ideology. From this, if you look at the 1990s, you meet Medoruma Shun, who seems to have inherited their ideas. Although he is not from the war generation, he grew up listening to the sound of live ammunition just like a war, and he understands the current situation in Okinawa as the ongoing war and occupation of violence. Above all, he does not go towards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violence’, which can b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modern people-state.

In this study, we envisioned the non-national, anti-state ideology and independence of Okinawa, discussed the nation and the empero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Okinawa, widely observed the thoughts of Arakawa and others who criticized the inside of Okinawa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eople of Okinawa, an influential writer representing Okinawa, and looked into Medoruma's actions in detail with his work, who is taking the lead in blocking the base construction is a practical activist and recorder before being a writer, and is evaluated as a sender. Their reasons will provide valid arguments for seek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intellectual network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and deriving policy alternatives.

Key words: Post-war Okinawan idea, Imagination of community, Arakawa Akira, Kawamitsu Shunichi, Okamoto Keitoku, Medoruma Shun

■ 논문투고일 : 2023. 05. 19

■ 심사완료일 : 2023. 06. 08

■ 게재확정일 : 2023. 06. 09